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골골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골골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골골하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골골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골골하다	-	-	-
골골하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0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골골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다.

☞ 골골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골골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골골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골골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골골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골골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골골후다
19세기
- 골골하다

↳ 골골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골골하다’의 옛말인 ‘골골ㅎ다’는 19세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골골ㅎ-’는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 부사 ‘골골’에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ㄴ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ㄷ’이 ‘ㅌ’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ㅎ-’가 ‘-하-’로 바뀌면서 20세기에 ‘골골하-’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골골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골골ㅎ-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골골ㅎ-

출처 1880 한불사전 194

용례 01

66 문헌 용례

골골하다[汨汨].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1:272

용례 02

66 문헌 용례

골골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골골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골골하-

출처 1920 개벽 제3호 14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집구석이라고 오면는 녀편네가 心臟이 터져서 피 한 점 업는 핏속한 얼굴노 압흐다고 골골하
기만 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4 동아일보 2월 1일 1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가게 된 미국도 실타 식집을 오면 학비를 대어주마 하는 약혼한 사람도 실타 하면서 골골하는
자네게로 오겠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란 그러한 거라고도 하겠지만.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6 조선일보 3월 25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발육도 대단히 완전하여 보히나 아비되는 이가 골골하고 알키만 하는 고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골골하다의 보충 설명

1841년에 소치(小癡) 허련(許鍊)이 쓴 한문 편지에서 ‘汨汨(골골)’이 골골대다의 뜻으로 쓰이는 점을 보면, 예전부터 ‘汨汨’을 차자 표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한불자전》의 ‘골골하다’는 일에 짓눌리다 | 가난한, 용기가 없는, 마음이 좁은, 인정과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로 뜻풀이가 되어 ‘몸이 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골골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은령 외 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자전》 소명출판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골골하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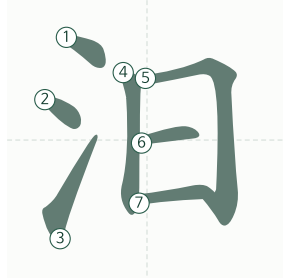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汨

뜻·음 골몰할 골 / 물이름 먹

총 7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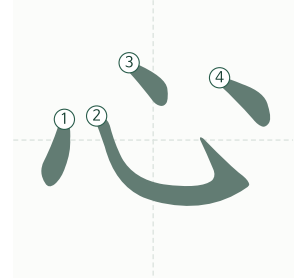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汨/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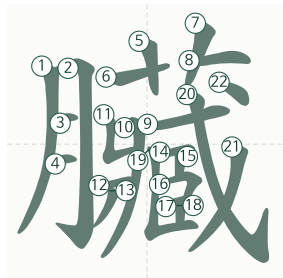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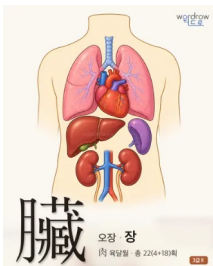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心/

臟

뜻·음 오장 장

총 22획 · 부수 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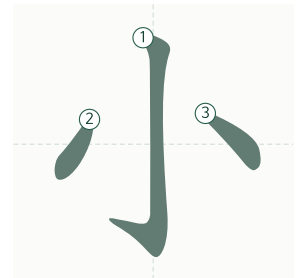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臟/

小

뜻·음 작을 소

총 3획 · 부수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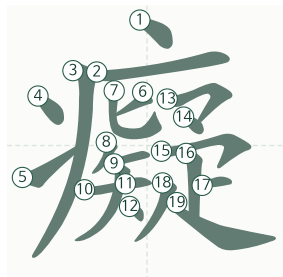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小/

癡

뜻·음 어리석을 치

총 19획 · 부수 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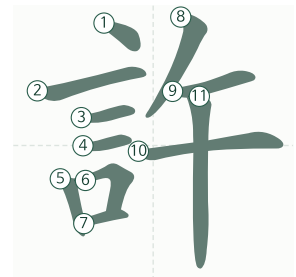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癡/

許

뜻·음 허락할 허

총 11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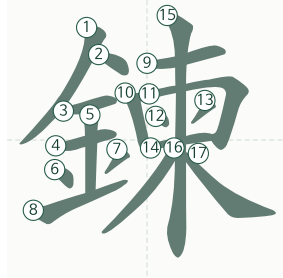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鍊

뜻·음 쇠붙릴·단련할 런

총 17획 · 부수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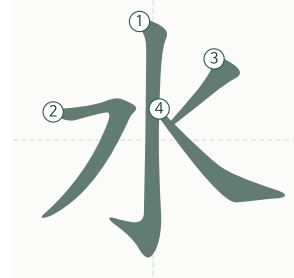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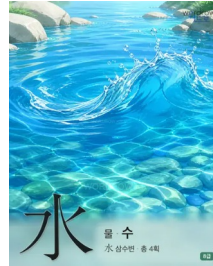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鍊/

水

뜻·음 물 수

총 4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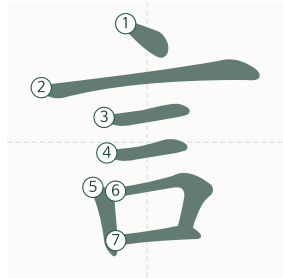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水/

言

뜻·음 말씀 언

총 7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言/

金

뜻·음 쇠금 / 성(姓) 김

총 8획 · 부수 金

본문 金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金/